

연말, 직장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 활동에 나선 일터불자회가 있다. 철도청 서울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우철재)가 그 단체. 이번 날 동참은 기본, 황금 같은 월차휴가 반납이 아낌없이 반납했다. 보람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법을 가장 담그기에서 찾은 법우회원들. 이들이 일으키는 '버찌버림'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구로승무소 법우회 김장봉사이던날**



◇ 사랑의 김장 담그기, 우리가 책임집니다! 서울 구로승무소법우회원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추 가루 한 움큼 더 넣어요.”  
“그만! 맵다니까요.”  
12월 4일,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대중목욕탕. 손놀림은 어눌하지만 오가는 대화 속에는 살가운 정이 묻어난다. 봉사의 즐거움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 간간히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연신 훔치면서도 얼굴에 머금은 미소만큼

은 여전히 가득하다.  
“집에서는 부엌 근처도 안 가봤었어요. 처음에는 고무장갑을 끼는 것조차 낯설었지만, 복지사들의 지도로 김치를 버무리니 결혼할 여자 친구 생각이 나오. 앞으로는 남을 위한 봉사와 함께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야겠어요.” 법우회 막내 함태호(31) 회원이 즐거

워한다.  
오늘 담가야 할 배추는 600포기. 부지런히 만들어야 한다. 9일까지 구로구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가구 150여 세대 500여 명의 밥상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장은 착작 진행된다. 한쪽은 배추를 다듬으면서 소금으로 절

**우리 모임에선**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봉행**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매아리(회장 공형수)는 12월 7일 서울 하림각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산악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공형수 회장은 “앞으로 다른 신행단체에 모범이 되는 불자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내 번사자 위한 천도재 봉행**

서울 동대문경찰서 불교회(회장 김중대)는 지난 11월 30일 북한산 금선사에서 관내 번사자를 위한 천도재를 주지 법안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했다.



**승변법회 · 양로원 위문**

강원 춘천시청 도반회(회장 정상현·사진)는 12월 8일 관내 춘천시립 양로원에서 승변 법회를 봉행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초발심자경문' 강의 들어**

철도청 성북승무소 법우회(회장 박우탁·사진)는 12월 16일 서울 기원사에서 주지 상현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들었다.



**'직장인 수행법' 특강 들어**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이선희·사진)는 12월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총무 도림 스님 초청, '직장인 수행법'에 대한 특강을 연다.



**법원 스님 초청 법문 들어**

우리는행 서울불자회(회장 정진호·사진)는 12월 12일 은행 본점 4층에서 동방 불교대학 교학처장 법원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우리 모임에선**

**“고추가루 좀 더...”**

**“그만! 매워요”**

**황금 같은 월차휴가 반납... 10년째 행사  
정성 담긴 김치 불우이웃 150세대 밥상에  
자제정사 격월 방문 청소·빨래 봉사도**

이고, 또 한쪽은 무를 씻는다. 배추 속을 채워 양념 준비도 한창이다. 멸치 액, 대파, 쪽파, 마늘, 고춧가루...  
철도청 구로승무소 법우회가 연말 김장 담그기 봉사를 시작한 지는 10년째. 법우회 우철재 회장이 이곳 복지관과 인연을 맺으면서부터다. 당시 우 회장은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란 신행 운동을 법우회에서 벌였다. 그러던 중 그 일환으로 봉사행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다.  
“물론 힘이야 들죠. 그래도 끝나고 나면 즐거워요. 봉사의 기쁨을 만끽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입맛을 돋우어 줄 생각을 하니 벌써 신이 나와요. 봉사란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맛에 법우회원들의 봉사행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법우회 염진영 총무(42)가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이들 법우회원의 손길이 닿은 곳은 적지 않다. 지난 1974년 창립 이후, 줄곧 구로 지역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은 물론, 관내 독거노인을 초청해 온천 등 유원지 나들이를 해주고 있다. 또 올 초부터는 정기적인 활동을 위해 전체 66명의 회원을 3개 팀으로 나눠 노인 복지시설인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를 찾고 있다. 회원들은 격월로 이곳을 방문해 청소, 빨래, 말뭍히기, 음식 준비, 땀땀 가꾸기, 잡뽕 뺀기 등 하나에서 열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다.  
김장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지 6시간 후, 목욕탕 욕조에 갖갈스런 빨간 김치 포기들이 쌓여 있다. 이들의 환희심 만큼이나 풍성하게.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경북 경산시청법우회**

“자비와 봉사”. 우리 법우회가 내건 신행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 공직자의 본분인 무한 봉사의 실천이란 두 개의 싹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 경산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도입니다. 창립법회는 지난 2000년 6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에서 주지 법타스님을 모시고 봉행했습니다. 당시 교무스님으로 계시던 하중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신 가운데, 20여명의 회원들이 뭉쳐 첫 법회를 가졌습니다. 참으로 신심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 젊어지고는 3배 정도였던 법우회원들이 이제는 108배는 기본, 첫 철야정진법회 때는 1500배 기도정진을 거뒀고 해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회원들은 새벽예배 후 철야정진을 회향하면서, 법당에서 요사채의 비탈면을 내려오는 도중 절뚝거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넘어지면 못 벗어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여전한 불제자로서 욕바라미를 몸소 체험하는 데 어느 베테랑 불자들 못지않습니다.  
법우회원들의 열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 지난 해까지는



◇올 11월 15일 경산시청법우회원들이 경산경흥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행열기 '후끈'...철야정진 땀 1500배**

**내년엔 소홀했던 보시행 강화 예정**

출발 3년차를 맞은 우리 법우회는 그간 뜻있는 회원들의 포교활동과 정회원 46명, 그리고 회원 가족들로 구성된 준회원 12명 등으로 현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5일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경산 경흥사에서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우리 법우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꾸준히 여는 정기법회에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경산시 경흥사를 원참로 한 정기법회와 연 2회씩의 성자순례, 철야정진법회 등은 불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육군 수송대와 불교교양대학을 방문해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우회 가족 사랑 시는 천도법회에 동참하는 등 좀더 가까이 부처님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우회 창립 이후, 부처님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풀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강의실 수강생 모집**

사주(중·초·실전), 관상(미의상법) 풍수(금남경), 수상, 육포 1월 5일(월) 개강 반 접수중

# 명당탐지기

## 관룡자

**관룡자란?**  
금강경(鑄囊經)에 의하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던 기기로,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랫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릉, 남원군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종의 묘, 일본 동경의 황기(皇宮)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적과 사찰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총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도 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 모두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 개씩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이 기기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총정도의 남도 교수는, 자신은 관룡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기기로 명당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나한테 배우려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관룡자를 분실하여 2개월 구입하였고 가장 아끼는 제자는 자신이 직접 데리고 와서 관룡자를 구입해 했습니다. 경상도의 김도 교수, 서모 회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룡자를 은밀히 사용해 오지만, 어쩌다가 주위 사람들 눈에 띄면 "이것은 수십 년 전에 중국의 한 도사가 전해 준 것으로 국내에 있는 건 모두 가짜다"라고 합니다. 전라도 김도 선생의 경우 "함께 풍수공부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룡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모두 가짜라고 하니 제발 사지말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렸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 전부터 은밀하게 관룡자를 사용해보는 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남궁달,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500 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임니다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105,600)=99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관룡자 휴대용 주머니(1만원 상당)) 무료증정.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 분할가능. 기업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1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수택탐지기 1세트 무료 증정
- 수제품 황금 18k 헤드 관룡자 주문제작 · 육포용 수제품 서주과 산복셋트 판매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사람마다 학식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www.kbs.cc**

**월간역학**